

# “광주FC 땀방울로 큰 바위 뚫겠다”

## K LEAGUE 1

광주FC의 땀방울이 2026시즌 기적을 만든다. 새 시즌 개막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은행 K리그 1 2026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리그 12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가했으며 광주에서는 이정규 감독과 ‘캡틴’ 안영규가 자리했다.

사령탑 데뷔전을 앞둔 이정규 감독은 첫 공식 무대에서 ‘수적천석(水滴穿石)’을 이야기했다.

이정규 감독은 “작은 땀방울이 모여 큰 바위를 뚫는다”는 사자성어다. 많은 팬, 언론에서 광주FC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 땀방울이 모여 큰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올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는 지난 시즌 ACL E, 코리아컵 그리고 리그 일곱까지 강행군을 펼친 가운데 ACL E 8강, 코리아컵 준우승 그리고 3년 연속 잔류(7위)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정규 감독에 이어 이정규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든 올 시즌은 시작부터 쉽지 않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지만 선수 등록 금지 제재로 올여름 이적 시장부터 선수들을 충원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다른 선수층으로 도전의 시즌을 보내야 하는 만큼 광주에는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이정규 감독은 개개인의 노력과 땀방울 그리고 ‘원팀’의 힘으로 K리그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뚫겠다는 각오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광주’다.

“이기고 싶은 상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정규 감독은 “어떤 팀을 이기기보다는 우리 환경이 많이

###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 데뷔전 치르는 이정규 감독

#### “팀 위기 속 우려의 시선 느껴

####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 준비

#### 최종 목표는 파이널A 진출”

안 좋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기자고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의 싸움을 강조했다.

목표는 확고하다. 태국 후아힌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부터 ‘파이널A’를 외쳤던 이정규 감독은 다시 한번 광주가 오를 고지를 이야기했다.

이정규 감독은 “광주FC 감독으로서 목표는 파이널A다. 지금까지 광주가 한국 축구에 보여준 경기력으로 파이널A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주장 완장을 차고 선수단 전면에서 ‘주장’ 안영규도 광주답게 결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안영규는 “감독님 말씀대로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 항상 걱정을 받았지만 시즌 들어가면 그 생각을 바꿨다. 걱정의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과로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시즌을 앞두고 이정규 감독은 ‘부주장’ 신창무의 능력과 경험을 기대했다.

이정규 감독은 ‘기대되는 선수’로 “모든 선수를 다 뽑고 싶고, 팀마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신창무 선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안영규는 이번 시즌 콜업된 금호고 후배 김용혁(DF)을 기대주로 언급했다.

이번 미디어데이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팀은 지난해 준우승팀 대전하나시티즌이다.



광주FC 이정규 감독(왼쪽)과 ‘주장’ 안영규가 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 각오를 사자성어 ‘수적천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올 시즌 우승후보”를 꼽는 질문에 12개 구단 대표 중 6명은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전을 언급했다. 이정규 감독 역시 대전의 질주를 예상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3월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FC를 상대로 2026시즌 개막전을 갖고 ‘파이널A’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어 3월 7일에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홈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도/클럽트의 호른 에버엔이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인터 밀란전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구 5만4000명 보도의 ‘기적’ 109년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 인터 밀란전 합계 5-2 승

“거참 사냥꾼” 보도/클럽트(노르웨이)가 ‘이탈리아 명가’ 인터 밀란을 제물로 삼아 창단 10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뤘다.

보도/클럽트는 25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인터 밀란과 2025-2026 UCL 녹아웃 라운드 플레이오프(PO) 2차전 원정에서 2-1로 승리했다.

지난 19일 1차전 홈 경기에서 3-1 대승을 거뒀던 보도/클럽트는 1, 2차전 합계 5-2로 인터 밀란을 따돌리고 16강 진출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말 그대로 기적이다. 인구 5만4000여명의 노르웨이 북부 보도를 연고로 1916년 9월 창단한 보도/클럽트가 UCL 무대에서 16강에 진출한 것은 109년 만에 처음이다.

보도/클럽트가 공개한 2023-2024시즌 회계

기준 매출은 3억3800만 크로네(약 510억원) 규모로 같은 기간 인터 밀란(4억7300만 유로·약 8046억원)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구단이다.

하지만 보도/클럽트는 이날 2차전에서 불철유용 36%-64%, 슈팅 수 7-30로 밀리기도 효율 슈팅에선 5-7로 대등하게 선전했고, 결국엔 1, 2차전 모두 승리를 따내는 기쁨을 맛봤다.

특히 보도/클럽트는 UCL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독일의 강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2-2로 비긴 것을 시작으로 7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3-1로 물리치더니 8차전 최종전에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까지 2-1로 꺾고 PO에 진출했다.

그러고는 PO에서 ‘강호’ 인터 밀란을 잡고 16강 진출의 기적을 연출했다.

이날 전반을 0-0으로 마친 보도/클럽트는 후반 13분 옌스 페테르 하우게의 선제골 이후 후반 27분 호른 에버엔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다.

인터 밀란은 후반 31분 알렉산드로 바스토키가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더는 따라가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또다른 PO 2차전에선 ‘노르웨이 출신 골잡이’ 알렉산데르 쇠블로트의 헤트트릭을 앞세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클럽프브루게(벨기에)를 4-1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지난 19일 PO 1차전 원정에서 3-3으로 비겼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 2차전 합계 7-4로 앞서 16강행 티켓을 품었다.

이밖에 뉴캐슬(잉글랜드)은 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 PO 2차전에서 3-2로 진땀을 거두며 1, 2차전 합계 9-3(1차전 6-1승·2차전 3-2승)으로 앞서 16강에 진출했다.

또 레버쿠젠(독일)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 PO 2차전에서 0-0으로 비겨 1, 2차전 합계 2-0(1차전 2-0승·2차전 0-0무)으로 16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L AFC의 손흥민(가운데)이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선발’ L AFC 16강 진출

###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 챔스컵

### 레알 에스파냐 1-0으로 눌러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전반전만 땀 로스앤젤레스(LA)FC가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LAFC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냐와의 대회 1라운드 2차전 홈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지난 18일 1차전 원정에서 1골 3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6-1로 대승을 따냈던 LAFC는 2차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1-0으로 이겨 1, 2차전 합계 점수 7-1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LAFC는 16강에서 알라후엘렌세(코스타리카)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더불어 LAFC는 레알 에스파냐를 물리치며 올 시즌 개막 이후 공식전 3연승(정규리그 1승·북중미컵 2승)의 신바람을 냈다.

LAFC는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드니 부앙가와 타일러 보이드를 좌우 날개로 펼친

3-4-3 전술을 가동한 가운데 주장 위고 요리스가 결정하면서 손흥민에게 ‘캡틴 완장’을 맡겼다.

손흥민은 전반 초반부터 레알 에스파냐의 좌우 측면을 흔들었지만, 잇단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길이 빠졌다.

LAFC는 전반 27분 아민 부드리의 침투 패스를 받은 테일러 보이드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 기회를 날린 게 아쉬웠다.

전반 40분에도 라이언 라포소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의 손끝에 걸리면서 LAFC는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LAFC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핵심 공격 자원인 손흥민과 부앙가를 빼고 티모시 킬먼과 나탄 오르다스를 투입하며 주말 정규리그 경기에 대비했다. 답답했던 0의 균형을 후반 19분 깨졌고, 주인공은 LAFC의 중앙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였다.

타파리는 골 지역 왼쪽에서 킬먼이 때린 오른발 슈팅이 레알 에스파냐의 골키퍼 루이스 로페스에게 막혀 골대 앞으로 흐르자 재빨리 원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LAFC는 후반 43분 레알 에스파냐에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요리스 대신 출전한 골키퍼 토머스 하살이 막아내며 1-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